

전통과 현대를 엮는 호세인 레즈바니 양탄자

이란의 직조공들이 엮는 수백만 개의 매듭이 씨줄 날줄을 이루며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한다.
페르시아 양탄자 특유의 정교함과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이 조화를 이루어 익숙하면서도 참신하다.
이렇게 독일인 디자이너 호세인 레즈바니가 선보이는 페르시아 양탄자 이야기다.

Weaving a New Tale

The millions of knots that compose each of Iranian-German designer Hossein Rezvani's contemporary Persian carpets come together to tell a story that's both familiar and novel.

페르시아 제국 하면 가장 먼저 장엄하면서도 화려한 이미지가 떠오른다.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 사는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의 바닥에 깔린 정교한 문양의 양탄자 같은 것 말이다. “아이들도 페르시아 양탄자는 알잖아요.” 디자이너 호세인 레즈바니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페르시아 양탄자가 뭔지 아는 아이들도 레즈바니의 전위적인 디자인을 만나면 깜짝 놀랄 것이다.

2009년 자신의 이름을 딴 양탄자 브랜드를 론칭했을 때부터 레즈바니의 디자인은 전통과 참신함 사이의 균형을 추구했다. 그래서 그의 제품은 페르시아풍 전통 공간에도, 현대 도시의 세련된 공간에도 잘 어울린다. ‘타브리즈 라일락’은 전통적인 메달리온 문양을 좀 더 부드러운 패턴으로 완화한 디자인으로, 2011년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양탄자의 패턴은 한쪽을 빛이 바랜 것처럼 배경에 스며들 듯 디자인한 게 특징으로 회색과 보라색의 조합이 더없이 현대적인 느낌을 풍긴다.

레즈바니의 제품은 페르시아의 정교함과 현대의 미니멀리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다. “저는 주로 전통 문양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절제하죠. 그러면서 색상 조합이나 패턴을 바꿔 가며 제가 추구하는 현대적인 느낌을 찾습니다.” 레즈바니의 말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레즈바니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그의 가족은 이란에서 양탄자 제조업에

Think of the Persian Empire, and images of ancient grandeur immediately spring up — powerful shahs ruling in exquisitely embellished palaces with equally exquisite carpets sprawled across the floor. “Every child knows what a Persian carpet is,” says designer Hossein Rezvani, founder of his own namesake carpet brand. And while that may be true, they’d do a double take if they were to lay eyes on one of Rezvani’s avant-garde renditions.

Since the brand’s launch in 2009, Rezvani’s designs have brilliantly straddled the divide between history and innovation. His *Tabriz Lilac*, a design that modifies a traditional medallion motif into a more muted pattern, won the prestigious Red Dot Design Award in 2011. The carpet’s pattern is asymmetrical, one side slightly dissolved into the background as though it has faded with time, but the simple gray-and-violet color scheme gives it an undoubtedly modern spin.

Rezvani’s design approach is influenced by the dual nature of his identity — his Iranian family has been in the carpet industry for more than three generations, but he grew up in Hamburg, Germany, and originally worked

종사하지만, 그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자라 디자인을 시작하기 전까지 금융업에 종사했다.

“양쪽 세계의 좋은 점을 결합했다고 볼 수 있어요. 독일식의 미니멀리즘을 추구함과 동시에 페르시아식의 대담하고 화려한 장식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내죠. 이런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어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미감을 녹여 디자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통은 제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통에 대한 존중은 레즈바니가 양탄자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은 컴퓨터로 진행하지만, 실제 양탄자를 엮는 작업은 이란의 이스파한에서 이뤄진다. 직조공들은 모두 장인 집안 출신이다. “어떻게 보면 가업이라고 할 수 있죠.” 레즈바니의 말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양탄자를 엮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직조 기술은 대대손손 전해진다.

레즈바니는 양탄자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최상의 재료와 장소를 고집한다. 양탄자에 사용하는 울과 실크는 실크 카펫으로 유명한 성지 콤에서 염색한다. 양의 목덜미에서 깎은 코르크 울을 구매하는데, 그 부위의 털이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섬세하기 때문이다. 천연 염색을 하는 것은 물론이다.



in banking. “My German side is more minimalistic, understated and calm. My Persian side is bold, opulent, loud and colorful,” says Rezvani. “It’s the perfect mix that I need to design something that’s timeless, but still shows where it’s from. Heritage is very important to me.”

That respect for heritage shines through in the way Rezvani’s carpets are made. Though designed mainly on a computer, the carpets are woven exclusively in Isfahan, Iran, a former capital of the Persian Empire. Rezvani’s weavers, who usually come from artisan families, work from the comfort of their homes with their children running underfoot. “It’s more or less a family business,” says Rezvani. The weaving is a part of everyday home life for his weavers.

Each step of the production process is done with the best possible materials in the best possible place. The wool and silk Rezvani uses are dyed in the holy city of Qom, famous for its silk carpets. The *kork* wool he buys is sheared from the sheep’s throats because it’s softer and finer there than anywhere else. Only natural dyes and soaps are used. When the weavers are finished, the carpets are washed twice to rid them of any stray fibers. The entire process is eco-friendly and highly sustainable. “Carpets always have been one of the most natural products you can get,” Rezvani explains.

Bringing his designs to life wasn’t easy at first. Master weavers in Iran have their own philosophies of how to create the best Persian carpet. At one point, Rezvani sent a design to a weaver, asking for a rug in blue and yellow, only to receive one that was red and green. “I said, ‘Why?’” he recalls. “And the weaver said — I will never forget this — ‘This looks better. You have no idea.’” The tale speaks to the pride Iranians feel for their craft. It took Rezvani over two years to find weavers who had the skill to weave carpets of the quality he was looking for and who were willing to follow his vision.

레즈바니가 1200여 가지 색상표에서 양탄자를 직조할 색을 고르고 있다(왼쪽). 2016년 ‘카펫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일렉트릭 토프’(오른쪽 페이지).

Before weaving begins, Rezvani chooses colors from his color reference system, which contains over 1,200 options (left). The award-winning *Electric Taupe* carpet (opposite).

© Hossein Rezvani



연이은 수상 양탄자는 1제곱미터당 100만 개의 매듭으로 짜인다. 가로 2미터, 세로 3미터 양탄자에 매듭이 600만 개 들어가는 셈이다. 보통 완성하는 데 3~7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직조 작업이 끝나면, 실밥을 없애기 위해 두 번의 행금 작업을 거친다. 전체 공정이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을 추구한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일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이란의 양탄자 직조는 수천 년에 걸쳐 발달해, 장인들은 저마다 철학을 갖고 있다. 그가 원하는 품질로 직조하면서 그의 디자인을 충실하게 반영해 양탄자를 엮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데 2년이 넘게 걸렸다. 일단 장인을 찾고 나니 ‘카펫 디자인 어워드’에서 2016년에는 ‘베스트 모던 디자인 딜럭스’ 상을, 2017년에는 ‘베스트 트랜지셔널 디자인’ 상을 받았다.

2016년 카펫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인 ‘일렉트릭 토프’는 베를린의 한 클럽 앞에서 발견한 테크노 음악 광고 포스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레즈바니는 모로코의 정원에서 재즈 전성기를 다룬 영화까지, 자신이 보는 모든 것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는다. 자신의 컬렉션을 ‘페르시아의 재창조’라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단순히 실크와 울을 엮어 만든 카펫이나 양탄자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시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는 작업이므로, 글 김휘지

SHOCKING RECEPTION Now that he’s broken down those barriers, the accolades keep pouring in. In addition to winning the Red Dot in 2011, two of his designs won the Best Modern Design Deluxe and Best Transitional Design categories at the Carpet Design Awards in 2016 and 2017, respectively. These honors recognize that his innovative work transcends genres and defies expectations. *Electric Taupe*, awarded Best Modern Design Deluxe, was inspired by a poster advertising techno music that Rezvani spotted outside of a Berlin club. He immediately saw a potential carpet. “It literally electrified me,” he says.

As someone who spends about 180 days a year traveling, Rezvani takes design cues from everything he sees, whether it’s a garden in Morocco or a film about the Jazz Age. It’s no wonder that he calls his collection *Persia Reinvented*. His carpets weave together not just silk and wool, but also diverse cultures and eras into one cosmopolitan tapestry. The Persian carpet has evolved and persisted through the rise and fall of ancient empires — now it has arrived in the 21st century. By Whizy Kim